

나무 날다

임 문 혁(시인)

비록 땅에 박혀 있을지라도
날아오르는 꿈, 꾸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으랴
온몸에 불을 품지 않은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으랴
불의 날개 아니라면 어찌 바람보다 가벼울 수 있으랴

그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나무를 보았는가
바람 설레며 펄럭이는 날 몸속의 불, 모두 불려내어
무수한 탈주선으로 분화하는 뿌리 달린 불새

온몸 불사르고, 생애 딱 한번 뜨겁게 날개 펼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나무를 그대는 보았는가

나무는 꽃이 지고 나서부터 꽃 피울 준비를 한다고 했다. 때가 되면 죽었다 살아 나듯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행위를 끊임없이 이어나간다. 화자는 나무의 꿈을 놓치지 않고 바라다본다. 불처럼 뜨거운 꿈의 존재를 마음으로 읽고 있다. 그리고 앙상한 나무 가지 내부까지 들여다본다.

지하에서 그 가지로 뽑아 올리는 수분의 이동경로를 살피다가 가지끄트머리를 뚫고 하늘로 치솟아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뿌리를 나무에 두고 분화하는 불새를. 어디 나무뿐이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으로 여기며 딱 한번 피워 올리는 불꽃을 불사르는 것이다.

봄을 맞이하는 나무의 부지런한 탈주를 우리 가슴에 담아준다. (윤 제 철)

장무상망(長母相忘)

손재원(수필가)

제주도 대정읍 추사 김정희 유배지에 왔다. 그리 눈에 띄지 않는 건물이 있었다. 잘 지어진 창고 같은 건물, 그냥 스쳐 지나갔다. 김정희 유배지를 관람하고 나오다가 다시 창고 같은 건물을 보니 김정희 기념관인 추사관이다.

추사관은 세한도에 나오는 집 모양의 건물이다. 우리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 대신 둥근 유리창이 있는 지극히 단순한 모양의 집이다. 그림 속의 집을 모티브로 하여 추사관을 설계하고 지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나의 무지가 부끄러웠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니 정갈했다. 아무것도 없고 김정희의 동상만 있었다. 어떤 드라마의 시작처럼 보였다. 시작은 많은 것들을 보여 줄 수 없다.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와 만날지 기대가 되었다.

일층에서 계단을 천천히 걸어서 지하로 내려가니 김정희가 유배를 오게 된 배경과 그의 일생이 연표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글씨체의 변천이 자료와 함께 전시되어 있다. 그의 글씨는 자신만의 개성과 힘이 있는 글씨여서 추사체라는 이름을 얻고 있다.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숙연해졌다.

드디어 <세한도>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학창시절에 보고 배운 내용이라 더 들을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세한도는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지에서 그린 그림으로 굵은 소나무와 옆으로 가지가 뻗은 소나무가 집 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둥근 창문이 있는 간결한 형태의 집은 그의 굳은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 추운 겨울이 와서야 소나무와 전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는 것 등이 그 그림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림을 더 자세히 보니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우리의 옛 그림을 보는 방법이 따로 있다. 좌상 우하로 본다. 왼편 위쪽에는 세한도라는 그림 제목이 있다. 추운 시절의 그림이라는 뜻이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은유적으로 추운 시간이다.

다른 작품들은 좋은 화선지에 그렸지만 세한도만은 거친 화선지에 그렸다. 이것 또한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세한도>라는 글귀 옆으로는 우선시상(藕船是賞) 완당(阮堂)이라는 글이 있다. '우선이 이것 보게. 완당'이다. 우선은 제자 이상적의 호인데 김정희가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다. 김정희의 또 다른 호인 완당 옆에는 낙관이 찍혀 있다. 그리고 왼쪽 아랫부분에도 주문방인(朱文方印) 유인(遊印)이 한 과(顆) 찍혀 있다.

바로 장무상망(長毋相忘)이다.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지.'라는 뜻이다. 장무상망은 이천년 전 중국 한대의 막새기와의 보이던 명문이다. 와당에 새겨진 글로 가장 오래된 글자인 전서로 쓰여 있다. 와당마다 쓰여 있던 장무상망! 그들은 무엇을 잊지 말기를 바랬을까.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주변의 많은 사람이 김정희 곁을 떠났다. 그를 멀리하기까지 했다. 우리나라 땅 끝인 제주도로 유배를 온 김정희는 마음이 쓸쓸했고 외로웠을 것이다. 세한도 그림에 나타나듯이 추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다른 많은 사람이 등을 돌려도 제자 이상적은 멀리 떠나 있던 스승에게 최선을 다하였다.

이상적은 통신사로 북경에 갈 때는 학문에 필요한 책들을 구해 스승 김정희에게 보냈다. 스승의 그림이나 글을 중국학자들에게 보여 주면서 그에 대한 평가나 이야기를 기록했다가 스승에게 전해 주었다. <세한도>도 중국 연경에 가져가서 그곳 학자들에게 보여 주고 많은 학자의 평을 받아 세한도에 덧붙였다고 한다. 김정희는 자신을 대신해 학문적인 통로를 열어준 이상적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장무상망! 이 말을 처음 알았다면 그저 그런 지식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블로그에 들어오던 이웃이 장무상망이라는 텃글을 써 주었다. 내가 알지 못하던 글귀라서 검색해 보니 서로 오랫동안 잊지 말자는 뜻이다. 그때는 서로 오랫동안 잊지 말자는 장무상망은 연인이나 일상적인 친구를 넘어서는 사이에서 사용하는 말이겠거니 추측만 하고 있었다.

이날 <세한도>에서 발견한 장무상망은 연인이나 가족 등에게 쓰는 말이 아님을 확인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된 스승과 제자 사이, 관포지교에 나오는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처럼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다. 뜻밖의 장소에서 장무상망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서 내 얼굴에는 염화시중의 미소가 변졌다.

김정희와 이상적의 우정은 함석헌 시인의 시를 연상케 했다. '먼길 떠나는 날 그대 처자를 맡기고 떠날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오래도록 잊지 않을 사람을 노래한 함석헌 시인의 시도 장무상망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나에게도 평생을 잊지 않고 함께 할 사람이 있는지 자문해 본다. 삶을 잘못 살아왔는지 아니면 삶에 끌려가면서 살아서 그런지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 기념관 밖을 나오니 눈부신 햇살과 흰 구름이 나를 부추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장무상망할 사람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